보 도 설 명 자 료
('17. 12. 1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수출 잘 나가지만.. 수입분 빼면 성장률 깎아먹어
('17. 12. 10, 연합뉴스)

1. 기사내용

□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주도로 올해 3% 성장이 확실시되나,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순수출은 오히려 성장률을 깎는 것으로 파악

○ "최근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반도체 착시 현상"이며, "반도체가 물량보다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순수출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"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상기 기사가 인용한 **한·은 "국민소득 통계"상 수출(재화·서비스 수출의 합계)**로, **일반적인 수출 개념**(통관기준 재화수출)과는 **차이**가 있음

○ 통상 **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적자***이므로 **"재화·서비스 합계 수출입의 성장 기여도"**는 **"재화만의 성장 기여도"보다 낮음**

* 서비스 수지(억 달러) : ('15)△149.2→('16)△177.4→('17.1Q)△86.6→(2Q)△67.5→(3Q)△85.0

○ 또한, **수입**에는 **"수출상품 생산 과정에 유발된 수입**(중간재 등)**"**과, 국내 소비 등 **"내수에 의해 유발된 수입**(소비재 등)**"이 혼재**되어 있어 수출에서 수입분을 뺀 **"순수출로 인해 성장률을 깎아먹었다"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**가 있음

□ 한편, **금년 1~10월 반도체 수출단가지수**는 **전년동기대비 24.4% 증가**하였으나, 같은 기간 **수출물량지수**는 **25.8% 증가**하여 **반도체 단가보다 물량이 수출 증가에 더 크게 기여**

○ 반도체 외에도, **철강·석유제품** 등의 품목이 **수출 단가 및 수출 물량이 동시에 증가**하여 **총 수출 증가에 기여**

* 수출단가지수 증감률('17.1-10월, 한은, %) : (철강)16.7, (석유제품)26.9, (일반기계)△0.9
수출물량지수 증감률('17.1-10월, 한은, %) : (철강)4.9, (석유제품)2.9, (일반기계)15.6

※ 문의 : 수출입과 이원희 과장 (044-203-4040)
정민규 사무관 (044-203-4041)